

농약없는 마을, 소비자와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어간다

연 익 흙
홍천 명동리 이장

〈표 1〉 명동리 농가수 및 경지면적

농가수 (호)	인 구 수 (명)			경 지 면 적 (ha)		
	계	남	여	계	논	밭
89	337	152	185	103	55	48

〈표 2〉 마을의 주요 농산물

벼(ha)	시설하우스(평)			노지채소 (ha)	가 축 (두, 수)				
	건고추	감자	포도		한우	돼지	혹염소	닭	오리
46	6,000	800	1,500	35	135	500	500	1,000	4,500

우리 명동리는 전체 89호의 농가, 전체 경지면적 약 100ha의 작은 마을로 마을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평균 경지면적 1ha 미만의 소농들이 전부이며 평균 연령 50세 이상의 전형적인 한국의 작은 농촌마을입니다. 우리 마을 전체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게 된 것은 우선 생태계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산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나갈 길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8명의 시설채소 생산자가 지난 1993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면서 명동리에서 환경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이들은 오이, 고추, 수박, 토마토 등의 과채류를 생산하여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전체에 유기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996년 환경농업작목반으로 개편하면서 마을의 많은 농가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오리농법에 의한 벼농사를 도입하여 무농약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지역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인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마을의 34농가가 비닐하우스 4,800평, 논 45,000평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농업 기자재 4,500만원, 소모성 농자재 1,000만원, 정미소 시설 4,000만원, 하우스시설 개선 2,500만원, 부대시설 2,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농업의 전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1999년 6월 성남시 분당구 서당동 통장협의회 회원을 시작으로 4회에 걸쳐 300여명이 참여한 도·농 교류행사를 치르면서 무농약 쌀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우리동네"라는 독자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을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myrice.co.kr)를 개설하여 전자상거래까지 조심스레 타진했습니다.

1999년 6월 김성훈 농림부장관이 명동리에서 이동장관실을 운영하여 마을주민의 사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한살림 박재일 회장님과의 만남이 오늘의 명동리 공동체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99년 12월 3일 온 마을주민이 동원되어 수확한 무농약 벼를 15톤 트럭 4대에 나누어 한살림의 도정공장인 여주 우수농산과 아산 둔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실어보내던 날 마을은 온통 축제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서울, 성남 등지의 친지나 도·농교류행사에 참여하여 회원이 된 소비자 가정에 쌀을 배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으며, 또 구매자금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살림의 구매결정으로 출하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농림부장관 표창, 퇴비상금, 새농어촌 건설운동 홍천군내 우수마을 지정(6,000만원 지원), 농림부장관의 지역현안사업 약속(도수로공사 및 포장공사 5억원 지원) 등으로 마을주민들은 큰 기쁨에 젖었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홍천군내 우수마을 지정으로 지원받은 6,000만원을 지난해 마을에서 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일에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다목적 창고 30평 건립, 도수로 400m 설치, 돈분 액비통(200톤) 설치, 환경농자재 지원 등 총 4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강원도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상하는 환경농업부문 농업기반대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상하고 상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상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동리가 추진한 대표적 사업으로는 환경농업 확대 실천(논 90,000평 오리농법, 비닐하우스 4,800평, 밭 15,000평), 유실수 식재, 장학금 지급과 구정 합동세배, 여름철 퇴비증산(전마을주민이 4일 동안 참여하여 약 800톤 퇴비증산), 방학기간 한문·예절교육 실시, 환경지도단 결성과 환경지도활동, 유기재배 시범포 운영(2,000평), 유휴지 이용 단호박 재배,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과 토종종자 확보, 하천을 정비하여 소공원 조성, 산지(山地)를 이용한 더덕과 두릅재배, 밥맛 시식회 2회 실시, 민속자료실 개관, 불법어로행위 근절, 문화재 발굴(명덕사 유래), 정보화 교육 및 마을 컴퓨터 설치, 유기농업을 위한 액비통 설치, 공동퇴비장 설치,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예정), 환경농업관 설치(예정), 무료민박 제공(노인정), 노인정 유휴농지 벼 재배, 공동담 재배, 벼 보관 및 다목적 창고 설치, 도수로공사(총 2,600m)와 농로포장(2,300m), 푸른들가꾸기 호맥재배(86,000평), 마을안 길 포장(300m)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한살림을 비롯하여 행정기관, 농업인, 일반소비자 1,000명이 넘게 방문하여 일약 전국적인 환경농업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친환경농업을 앞서 실천했던 마을의 중심인물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마을사람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과, 오리농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오리막을 지어주고 오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보다 편하게 오리농법을 시작하도록 도와주고 퇴비생산 및 살포 등의 작업을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명동리 공동체에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공동방제작업(목초액과 전해수 등), 퇴비생산, 환경보호운동, 폐품수집 등 공동작업이 가능한 것은 모두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퇴비확보와 벼질 썰어넣기, 논 호맥재배, 액비 살포 등의 작업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을회의를 통하여 마을 내의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행한 것도 매우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최초로 논 161,500평, 비닐하우스 4,800평, 밭 50,000평 등 마을의 전농지를 무농약, 유기재배 포장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여, 마을의 전농가가 결의하여 올 4월 25일 “농약없는 마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마을의 전농지에서 모든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를 실천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마을의 전농사를 유기재배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동리에서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개방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사업, 생산기반 시설, 장학제도 활성화, 유통지원 시설, 정보화교육, 소비자 방문 시 다채로운 프로그램 조성, 공동작업기 증설, 유휴지 이용에 의한 소득증대, 토종종자 보존과 상품화, 농업기술의 다양화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학사업기금 1억원 조성, 냉장차량 구입, 농산물 유통시설 창고 증설, 도수로 공사, 돈분액비탱크(200톤) 추가설치, 퇴비성형기 및 퇴비혼합기 마련, 공동농기계 구입, 잡곡 도정기 구입, 농가별 환경농자재 구입지원, 환경개선 및 유실수 식재, 부대시설(부화기, 중량기 등) 설치, 유휴지 두릅재배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동리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안정적 생산과 출하를 가능케 해준 한살림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큰 격려였습니다. 내년에 환경농업교육관이 건축되면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생산지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환경농업교육관 부지 앞 하천을 정비하여 여름철엔 물놀이와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철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하고, 민속자료실의 전시품도 다양화, 체계화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접하고 전통문화 및 우리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또 소비자 가족을 위한 주말농장 개설도 검토하여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세계화란 미명 아래 외국 농산물의 무차별적 수입, 유통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래 유전자조작식품, 광우병 파동, 구제역 파동, 환경호르몬 문제 등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고 큰 폭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경제 파탄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생태계를 보전해가려는 우리들의 노력이 조그마한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